

제 6 강 언어와 인간

◆ 1교시 soma의 개념

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래 화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목요일로 하루 또 바꾸게 됐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오늘 수업을, 지난 화요일에 3시간 하기로 했었죠? 오늘 3시간 하구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원래대로 화요일에 2시간 수업이 원래가 3시부터죠? 다음 주에 3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할게요.

▲ 언어학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7주차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항상 언어의 문제, 언어학이라든지, 언어 철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으로 나타나는 간에 언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언어 문제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을 그리고 왼손이 오른손을 그리고 있는 그림. ‘에서’인가요? 작가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손이 왼손을 그리고 있는데, 왼손이 그려져야 오른손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역시 오른손이 그려져야 왼손을 그릴 수 있겠죠. 서로 양쪽 손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언어학이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언어학이라고 했을 때, ‘-학’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한다면 접미어로 ‘-logy’라는 말이 붙잖아요. 한국말에서 뜻하는 ‘-학’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몇몇 학문 용어 같은 ‘science of-’ 들어가는 그런 모든 용어들.

‘-logy’, ‘science of-’, 아니면 ‘-학’ 한국말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언어라는 이야기죠. 로고스(logos)라는... 아까 ‘-logy’도 로고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이 결국은 인지 가능한 형태로 바뀌놓는단 얘기죠.

모든 것, 대상을 말이죠. 그러니까 ‘-학’이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용어의 결합이 앞에 있는 것은 대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회학이라고 이야기 한다면, 사회학이라는 말도 두 용어의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회’라는 말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연구의 대상이죠. 뒤에 있는 ‘-학’이라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를 -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인지 가능한 형태로 보자는 거죠. 그게 -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cience of-’ 하던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의 science를 보면요. 물론 이 말에도 다중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미라는 의미에서의, 좁은 의미에서의 ‘과학’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 인문 과학 할 때, 그런 과학이죠.

science라는 말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광의(廣義)해서 쓴다면, 뭔가를 인지 가능한 대상으로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넓은 의미로 썼을 때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죠. 어떤 대상을 놓고 인지 가능한 형태로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이란 말이죠.

무슨 학, 무슨 학 이럴 때. 언어학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상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방법이 대상이 되는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언어가 있어야 학을 하는 건데, 그 학이 언어를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맞물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문학은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과 방법이 같은 데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이, 틀로 만든다고 할 때 그 틀이 우리 안에 내재돼있다는 거죠. 그 안에 내재돼 있는 것으로 다시 틀을 만들고, 그 틀이 다시 내재돼 있는 것을 만들고. 이런 순환 형태가 바로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 언어와 언어철학의 관계

어떤 의미에서는 분석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모든 철학적인 문제는 언어의 문제이고, 언어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철학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런 출발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것이 결국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철학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언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 하는 거죠.

물론, 목적은 다른 거죠.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 한 거지만,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언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철학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논하는 그런 학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어떻게 쓰여야 가치 있는, 말하자면, 참으로써, 진리로서 통과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걸러야 하는 것인가.

참된 언어로 걸러질 수 없다면 근거는 어디 있는가. 그런 조건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언어 철학인 거죠. 반면에, 다른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목적으로, 언어 분석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

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을 가지고 철학에서 이야기 할 때, 언어학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학문들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들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고, 언어학이라든가 다른 기타 과학들은,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구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자연과학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야기될 수 있는가라든가, 다시 말하면, ‘interpretation’을 한다고 할까요. 다시 한 번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그것이 언어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학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어학을 연구를 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이 굳이 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언어를 어쨌든 간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건, 언어의 연구 자체가 목적이든 간에 언어를 연구한다는 그 자체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쫓 이때까지 보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야기 할 내용 안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갖는 한계와 그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태까지도 지난시간에도 쫓 봤지만,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인간이 정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그쪽 방향으로 발전돼 왔었고.

무슨 얘기냐면,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과거에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인간이 놓여있는 그런 방식에서 서구사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든 간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점점 인간 중심으로 좁혀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 중심으로 공격적인 방식이 됐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 다시 말하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 행사를 하는 공격적인 의미로써의 그런 인간 중심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계를 발견했다는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세계 중심에서 인간 하나가 놓여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이 된다는 그런 사고가 되잖아요. 넓게 보자면 중세라고 하는 사회를 한 천 년 동안 보면, 다시 인간 중심이 아닌 신의 중심이 되는 사회였잖아요. 물론, 인문학 관점으로 보자면 중세에서도 엄청난 학문적인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보자면 신이라는 중심 다음으로, 혹은 밖으로 놓여있는

인간, 그런 관점에 있다가 그 후, 르네상스 이후로 나오는 고전주의라든가, 근대라든가 그 이후의 모든 방향들이 전부 일관되게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한계를 본 거죠.

우리가 근대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식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후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 고민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 의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내 고민이 뭐가 됐든,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쓸 데 없는 고민을 하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고, 내 고민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 있다는 것.

내가 혹시 헛것을 보고, 헛욕망을 가지고 있고, 헛꿈을 꾸고 있고, 헛된 학문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 안에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헛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하고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것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헛것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하여간 내가 만들어낸 모든 인식 체계는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그것 밖에 없다는 거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전제론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 인간의 사고는 미리 주어져 있는 범주 안에서 인식한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신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내 작은 머리로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다니까 신의 존재 자체를 내가 그대로 다 통째로 믿을 수 있다면, 그 전체를 내가 다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거의 신의 레벨하고 똑같은 거죠.

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다 이해한다면 신과 동급 아니겠어요? 그건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죠. 그러면 신이 아니니까.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신도 내가 만들어낸 신,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신의 모습은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신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론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런 결론만 이야기 했을 때는 어떤 신학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야할 수도 있지만, 인식론적으로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근대 사회로써의 대전환 아니겠어요? 그런데 크

게 보면 데카르트 이후의, 칸트라고 하는 대철학자도 마찬가지였죠?

선엄적인 자아라고 하는 것의 발견.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주관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범주. 범주는 나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범주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미리 나에게 주어져 있는 범주라는 거죠.

누가 주었는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고, 이것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그 이후에 현상학도 마찬가지였고. 크게 보면 분석철학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류 흐름은 다 그 길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분석철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알지 못하는 것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슬로건 아니겠어요? 현상학도 마찬가지고. 현상학도 모르는 것은 일단 괄호 안에 놔두고 아는 것을 가지고 문제로 접근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안에서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험주의적 사고하고 크게 대립되는 어떤 그런 것. 미리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있는 그 틀 안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언어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쉬르의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었죠.

▲ 언어학의 방법론 - 예) 데카르트의 전환

소쉬르의 경우도 내가 언어를 무엇으로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언어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면, 백이면 백 명이 전부 다른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그랬을 때, 백 명이 전개한 언어학은 백 개의 언어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것을 언어학이라고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리 대상이 주어져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대상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어떤 근거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방법론 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이라는 거죠.

게 없다면 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기술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학’ 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다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틀이 굉장히 모자라다든가, 아니면 그 틀 안에 뭔가 큰 결함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전의 데카르트 경우처럼, 칸트에 이르러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학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학문적 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엔 이것이 한 번 전환되는 거죠. 데카르트에 의한 전환도 그랬었고, 이후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어떠한 틀에 대한 전환이지 대상에 의한 전환은 아니라는 거죠. 틀을 바꾸면 보이는 것이 바뀌고 그러는 거지, 대상이 바뀌어서 틀이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언어학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 학제와 학문의 혼동에 유의 - 예) 수사학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학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디서피니(discipline), 우리가 흔히 영어로도 그렇게 하는데. 학제라고 하는 것과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을 science라고 부르든, study라고 부르든 어떻게 부르든 간에 학문이라고 부른다는 것.

학문이라고 부른다면, science라고 부른다면 엄밀한 부분에서의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일정한 틀에 검증 절차를 거친 그런 의미에서의 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의미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의 과학이죠.

우리가 학제라는 부분과 학문이라는 것을 구별하고 혼동을 범하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위해서 수사학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사학의 출발점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도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안에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테크닉이냐, 아니면 능력이냐를 놓고 ‘뒤나미스(dynamis)’라는 용어를 썼을 때에 잠재적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돼 있는, 그 당시엔 선언문이라는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그리스 시대에. 아니면, 주관적 이런 말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후대에 와서 부여한 개념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능력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차후에 어떤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만들어나가는 차원에서 디서피니(discipline)냐, 사이언스냐. 그런 대답, 그런 구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분석철학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철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언어학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립되어 온 측면도 있다는 거죠.

▲ 언어철학과 언어학의 내부가 아닌 영역적인 대립과 그 예

넓은 의미의, 굳이 우리가 학문적인 차이점을 꺼내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론적인 그런 관점이 중요한 가운데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철학 안에서의 언어철학. 그리고 가치론적인 어떤 모든 판단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논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학문, 과학, 언어학.

그런 차이가 있는 반면에, 여태까지 상당수의 두 양 쪽의 대답은 아까 얘기했던 학제적인 대답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학제적인 대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학에서 철학과나 언어학과나, 라는 그런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안에서도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은 이쪽 영역, 이쪽 저쪽 영역.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씩 언어학 내부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논하는 그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적, 근본적인 대답 안에서 벌어지는, 이를테면 이데올로기의 대답 같은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철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실, 실제 철학 안에서, 다시 말해서, 강단에서 이뤄지는 철학 안에서 보면, 철학 분야를 영미철학, 대륙철학, 동양철학 등 그런 식으로 나뉘요.

그런 다음에 그 영역 안에서의 대답관계는 내용가지고의 대답이 아니라, 누가 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나뉘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 학문적인 내용의 대답이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대답, 바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대답들이죠.

흔히, 우리가 언어학을 이야기 할 때도, 일반인들이라든가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쉽게 보죠. 예를 들어, 언어학을 한다고 하면, 그럼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외국어를 참 많이 아시겠네요. 그럼 어느 나라 언어하세요? 이런 것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인 대답이에요.

문학을 논할 때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문학한다고 하면, 어디 문학 하세요? 프랑스 문학 하세요? 국문학? 아니면 영문학? 어떤 문학하세요? 영문학이요. 이미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학적 대답으로 나뉘져 있다는 거죠.

영문학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그럼 몇 세기하세요?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해요. 항상 우리가 문학에 전문가라고 해도 그런 식의 대답이에요. 지리적으로 어디 문학이나, 몇 세기나, 누구 전문가나 이런 식의 대답이 사회학적인 대답으로 모든 것이 나뉘진다는 얘기죠.

그게 언어학 안에서도 똑같은 중요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 얘기했던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언어학이라는 분야의 대답관계는 그런 식으로 학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또 차지하기도 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언어학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그랬었죠.

과거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도 서로 따로 발전했잖아요. 대륙하고 영국하고 서로의 소통 없이 따로 발전하다가, 결국에 영국 수학이 고립되는 길로도 이어졌지만. 학문의 발전 같은 것을 보면 학문의 내적 문제와는 별도로 외적인 대립 관계로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봤다는 거죠.

▲ 그노시스(gnosis)의 정의와 그를 통한 대상의 전이 (상징작용)

언어의 내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마지막쭉에 소마(soma)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그노시스(gnosis)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그노시스(gnosis)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 말로 'esthetics'라고 흔히 부르는 '미학'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아닌, 과거에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집어넣잖아요.

촉각, 후각, 미각, 시각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 단계는 아직은 대상을 접수했다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것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억이라든가, 모든 것이 종합이 되겠죠.

하나의 종합적인 대상으로 놓였을 때, 그 능력이 gnosis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거죠. gnosis라는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거죠.

gnosis를 통해서 대상이 정해지면, 대상이 그 하나를 가지고 다른 대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대상1 → 대상2)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징 작용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연상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상1과 대상2. 이것을 표상(대상2)이라고 얘기 했었죠.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 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든) 있는 대상으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곳으로 연상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개가 뱀하고 싸운 이야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뱀과 격투를 벌여가지고, 뱀을 보면 위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뱀을 보면 '뭔가의 위험'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런 상징작용, 이것이 하나의 지시대상이 다른 걸로 넘어간다는 작용, 이게 바로 기본적인 언어작용이라고 했잖아요.

▲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특징

하나의 지시물을 놓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뱀을 놓고서 위험을 표시하는 것. 뱀은 지시물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위험이라고 하는 표상, 의미. 저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건 위험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상징 단계에서의 동물과 공유하는 인식작용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에 직접 주어
져 있는 대상을 가지고 직접 주어져있는 의미를 뽑아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대상을 추상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시니피앙이라고 얘기했었죠. 소쉬르가 발견했었
던 시니피앙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니피에도 소쉬르가 책에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제자들
에 의해 정확하게 시니피에에 대해서 묘사되지 않았지만 차후에 엘름슬레우에 의해서 더 보
강, 정리가 됐다고 하죠.

그 시니피에에 대해서 의미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구성을 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 빈껍데
기, 틀인 거죠. 그 틀을 통해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이겠지만, 여기서는 지시물에서 의미(지표→의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의 필터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소리를 만들어내
는 거잖아요.

(대상1→지표→시니피앙→소리) 있는 그대로 자연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연
물하고 실제 소리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그럼
항상 시니피앙은 소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수화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봤잖아요? 수화를 봤을 때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시니피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소리만 가지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 가장 손쉽게 기호화 시킬 수 있는 것이 구강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학문의
연구가 필요로 하겠죠.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인간의 구강구조가 혀나 입술이 쉽죠, 손 보다는. 손의 근육보
다는 입의 근육이 가장 쉽게 돼 있어요. 물론, 언어를 통해서 진화를 하다보니 그게 가장
발달 돼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시니피앙의 결과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의미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의미가 아니라, 시니피에 구조를 통해가지고 빠져 나오는
것이 관념, 혹은 개념이라고(대상2→의미→시니피에→관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관념과
개념 사이에서의 특별한 의미는 구별하지 않고 쓰는 중이에요. 관념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언어의 구조였었잖아요.

▲ 소마(soma)의 정의와 특징

반면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마(soma)라는 말을 했었을 거예요. 소마(soma)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노시스(gnosis)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스어에서 채용해온 것인데, 원래 그리스어

에 있는 말이죠. 저것은 인간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통일해서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를 형성한다는 것. 그러니까 베르그송이 이마쥬(이미지)라는 말로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미지가 됐었잖아요.

결국은 gnosis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미지고, 그 다음에 soma의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미지고, 다 이미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구별하지 않았었죠. 그랬을 때, 근본적인 함축, 환원주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디로, 마치 교통체계에서 보면 차들이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없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있다.

그럴 때 두 개로 갈라놓지 않으면 뭐가 어느 쪽 방향이고 뭘 어떻게 빼야 되는지 제대로 판단이 잘 안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제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 의미로 공리라고 하는 것.

▲ 공리와 공준의 특징과 차이

조금 옆으로 빗겨나가는 얘기지만, 공리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로요. 바로 이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회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회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공리라는 말과 공준이라는 말을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학자들이 그 말이 그 말이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공리라고 하는 것에는 악시오마(axioma)라고 부를 수 있는, 악시오마라고 하는 것도 회랍어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가치적인 개념인 거죠.

이거는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 이상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면 동그란 원이 나오겠죠? 한 점으로부터 다른 한 점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2m다. 그러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m거리에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겠죠?

그럼 그 점들이 쭉 모여 있는 집합을 그려보면, 결국은 동그란 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각형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것이 명백한 진리잖아요.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반면에, 예를 들어 평행선이라고 하면 서로 만날 수 없는 두 선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진리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합의에 근거를 두고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에 근거를 두고 이거를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처음 출발을 하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공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포스툴라(postulat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어요. 공리라고 하는 것과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출발점으로써의,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없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영역을 구축해 놓은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공준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지 않으면 소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준을 공유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다른 수학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각자의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제적인 그런 차이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생각난 김에 또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 소마(soma), '나'를 하나의 개체로 묶을 수 있는 능력

다시 이야기 한다면, soma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개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이마쥬(image)라고 하는 안에 모든 것이 섞인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이미지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 정보기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놓은 체계.

그것을 대상, 사물로 부를 수 있다면, soma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의 개체라고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그 이전 단계로써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 정보차원의 문제는 없으나 자아의 구별 능력이 없는 gnosis(감각 단계)

감각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내 몸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 정보의 차원에선 문제가 없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다 보여요. 그리고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 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의 그 문제. 다시 말해, 이게 동물적 차원에서의 문제죠.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예요. 가장 원초적인 동물적인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 아는 게 아니죠.

▲ 보통으로 알아보는 소마(soma)의 단계

베르그송도 그렇게 얘기 했죠? 내 뱃속에 있는 신체 기관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렇

지만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복통이 있었다했었잖아요, 우리가 수업을 하기로 했던 화요일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복통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물질 같은 뭔가가 느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고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내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동물적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게 종합적인 하나의, 고등동물들은 다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내 개체로 만든다는 것. 그게 소마라는 것. 가장 기본적인 단계죠.

▲ soma, 주체의 전이 (gnosis 대상끼리의 전이와 비슷한 과정)

그런데 그 소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개체가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개체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것. 아까 얘기했던 대상과 대상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의 개체가 있으면, 또 다른 개체로 전이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냐면, 지금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개체는 동시에 뭐라고 연상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면, 사회 구성원 안에서의 나.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사자 같은 경우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고등동물이라면.

저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상을 만들어서 gnosis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만들어서, 대상과 대상의 연상 작용을 하는 것은 고등동물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soma 과정을 통해서 대상이 아니라, 이번엔 다시 말하면,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object! object 하나 만들어서 다른 object로 연상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subject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체라고 하는 거죠. 주체를 만들었을 때, 그 주체가 다른 어떤 주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얘기를 잘 이해 하셔야 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베르그송도 그랬고, 많은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적립을 시키지 못했어요.

▲ 철학과 과학의 대립에서 볼 수 있는 소마(soma)의 특징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이마쥬라고 이야기 한다면가 아니면, 주체는 여기(주체와 객체는 따로

떨어져있는 상태) 있고,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의 관계로 얘기 한다든가. 왜냐면, 철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론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에서 모든 것이 갈라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것이 형이상학인 거죠. 더 이상 대답이 없는 것이 형이상학이에요. 그런 거에 반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답관계, 그리고 구조주의. 좀 있다가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건데, 구조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형이상학하고 대답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왜냐면, 구조주의라는 것은 이 대답관계에서 설명이 되지, 이 대답관계가 없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구조주의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계속 형이상학과 대답할 수밖에 없죠. 구조주의가 성행했던 시대는 형이상학의 쇠퇴와 그대로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이 설명이 안 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능력은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능력이에요.

gnosis라는 능력 말고 이 soma라고 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개체를, 여기 있는 나의 개체를 느끼면 동시에 느끼고 있는 나의 개체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소속돼 있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

▲주체의 변증법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라는 상대성

쉽게 사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어느 사자도 자기 개체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기 있는 조그만 사자의 아빠라는 그런 것들도 느껴요. 사자가 아빠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조그만 사자와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인식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gnosis작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정보를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인식이 아니고, 적절한 표현이 참 없는 거죠.

여기서 ‘안다’ 라는 말을 자꾸 이쪽(인식)으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내 개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쪽에 있는 저 조그만 사자와 나와 관계에서의 어떤 그 개체를 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나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철학에서 즉자와 대자라는 개념이 있죠? 바로 그 개념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로서의 나. 반면에, 상대적인 나. 나니까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대적인 나라고 하는 것. 저 사람에 대한 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고등동물이든 다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여기에서는 대상1과 대상2에 관계로 얘기한다면. 대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아까 object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아까

쓰려고 했다가 지웠던 object 있죠? object가 아닌 subject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좀 유사한 용어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객체라고 하는 말을 저것은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gnosis)를 대상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object를 객체라는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객체1에서 객체2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객체와 대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soma)는 주체라고 하는 것. 주체1에서 주체2로 전이되는 이런 능력(주체1→주체2)도 똑같이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고등 동물 얘기하는 거죠. 원생동물 말고. 고등동물들도 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사자의 경우처럼 나로서의 나, 나니까 나인 그 나. 그 나도 나지만, 재에 대한 나, 다시 말하면, 특정 사회에서의 나라고 하는 것, 어떤 위치의 나, 그쪽으로 바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동시에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와 나와의 관계를 알아요. 뭘 배워서, 뭘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주체로서의, 내 객체의 나는 또 다른 어떤 의미로의 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객체들 사이에서의 어떤 시리즈로 연결되는 관계인 것처럼 여기서도(주체)에서도 바로 시리즈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물과 똑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의 추상작용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추상작용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지표라고 하는 것, 대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객체라고 하는 것 다 같은 이야긴데. 그것은 자연에 주어진 그 단계 그대론데 이것을 하나에 몰아다가 추상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을 틀을 통해서, 빈껍데기를 통해서, 지난번에 봤죠?

▲ ‘시니피앙-소리’와 ‘시니피에-실제관념’의 차이

그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이 아니라 빈껍데기, 틀이에요. 변별작용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경계선을 막아주는 경계선일 뿐이에요. 빈껍데기. 그런 의미에서 부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걸 다시 채워 넣는 것이 소리잖아요. 시니피앙과 소리는 달라요.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하셨죠?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쉬르의 표현대로 한다면, 소리의 이미지라고 했었죠.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소리의 껍데기에요. 소리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가라는 빈껍데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리를 담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 시니피에도 그렇고. 시니피에는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를 담는 껍데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단어를 얘기한다면, 영어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desk라는 것을 취해 봐요. 그러면 desk라는 단어를 취하면서 바로 우리는 의미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그 의미만 생각하지 그 껍데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desk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떠오르기 이전에 의미를 담아내는 빈 틀이에요. desk가 뭘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시니피에와 실제 관념 사이의 차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 주체의 변증법적인 과정

그런 것처럼 똑같이 주체들 관계에서도 있는 자연 단계 그대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주체를 추상적인 단계로서의 분석과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인간 세계서의 어떤 주체로 해석하는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화 시키는 과정과 똑같이 변증법적인 단계로 우리가 한다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이 주체를 만드는 과정도 동물과 똑같은 과정으로서의 주체의 연상 작용이 아니라, 다시 추상화 시킨다는 인간의 다른 틀을 만든다는 인간이 말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과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예요.

예를 들면, ‘성’을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동물적 성과 인간 문화에서의 성은 굉장히 달라요. 당장 보더라도 외국어에서 독일어나 불어 같은 경우에, 언어 같은 경우에도 성이 있죠. 그건 동물적 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의미에서의 성의 대립이 문화적 의미에서의 성의 대립하고 달라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대립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주체 과정도 설명 돼야하는데 주체에서의 이 문제를 잠시 휴식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